

<교회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
390-883/충북제천시백운면
천등박달로5안길 8
HP : www.vit2be.com
담임목사 신상균



백운교회 소식지

창간 2014년 4월 6일 대표전화 043/652/9191

제 31호 2016년 10월 2일 발행 [월간]



담임목사 신상균

마음의 겨울

교회 정원에 대추나무가 한그루 있다. 그런데 금년에 대추 열매가 꽤 많이 열렸다.

색이 빨개지기를 기다리다가 며칠 전 열매를 따기 시작했다. 어떤 것은 아직도 파랗고, 어떤 것은 빨간 색이 물들고 있었다. 그러다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이미 새빨개져 말라버린 열매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똑같은 나무인데 왜 이리 열매가 다를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까? 작은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일까?

그러나 열매를 따는 나는 신이 났다. 파란 것은 파란 것대로 맛이 있고, 붉은 색은 붉은 색대로 맛있기 때문이었다. 비록 색깔의 차이는 있었지만 내게는 열매를 맺는 것이면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과일나무가 아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않는 과일 나무는 베어져 펄갸로 쓰일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가을이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과연 나는 일년 동안 열매를 맺었는가? 비록 그 열매가 파란 열매일수도 있고, 빨간 열매일수도 있는데, 그런 열매가 있냐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열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면서 살아있는 동안 열매를 맺게 만드셨다. 마치 나무가 살

아 있는 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숨을 쉬는 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은 파란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은 빨간 열매가 있겠지만,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으신다. 대신 열매의 좋고 나쁨을 따지신다.

아무리 열매가 많이 열려도 썩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열매도 나쁜 열매가 많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열매가 파랗고, 열매가 맛이 덜 들어도 썩지 않았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리 열매가 빨갛고, 맛이 들어어도 이미 썩

어버렸다면 그 열매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나무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가? 성경은 또 이렇게 가르쳐 준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 이니라”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하게 말하라는 것이다.

이 가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선한 마음과 선한 말이 아닐까?

10월을 맞이하여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충북연회

감독회장 및 감독 당선 축하

지난 9월27일(화)오전10시 투표 실시



충북연회 감독 이병우목사 (충주제일교회)



감독회장 전명구목사 (인천대은교회)

지난 9월 27일 충북연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할 감독, 그리고 감독회장 선거가 있었다.

이번 충북연회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2위인 전윤식목사와 6표 차이로 충주제일교회 이병우 목사가 감독에 당선되었다.

이병우 목사는 목원대학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청주지방에서 목회하였다. 그리고 2004년 충북연회 총무로 일하다

가 2012년부터 충주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감독회장 선거에는 총 6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전명구목사가 당선되었다.

전명구목사는 협성대학교를 졸업하고 1986년부터 지금까지 인천대은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2008년 중부연회 감독을 지냈다.

오는 27-28일 제32회 총회에서 취임식이 있을 예정이다.

백운초교 교장부임 인사말

“행복한 백운교육을 꿈꾸며”

사랑하는 백운교회 성도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 9월 1일자로 백운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최동섭입니다.

48명의 어린이와 교육가족 그리고 백운 지역주민 여러분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또한 백운초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교는 올해부터 ‘농촌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 자율학교’로 지정 되었고, 현재 어린이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적인 노력, 선생님들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교육전문가로서의 잠재능력, 학부모님들의 학교에 대한 믿음과 적극적인 참여, 동문님들의 후배사랑과 애교심이 매우 크십니다.

이에 저는 학생들의 ‘행복하고 즐거운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백운 가족 모두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백운교회 성도 여러분! 작은 학교 살리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인해 2013년 이후 48명 내외로 수년간 50명 이하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자연적 감소로 조만간 학생이 더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본교는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자랑스러운 학교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학교, 학생이 찾아오는 학

교’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직원과 학부모, 동문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생 한 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고 활성화시키는데 백운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섬기는 리더십과 3공(공정,공평,공개) 정신으로 「행복한 학교, 안전한 학교」를 구축하고 ‘선물마감(선생님께 물건 말고 마음으로 감사하자) 운동을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앞으로 4년 동안 작은 학교를 살리고 행복한 백운 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백운교회 성도 여러분, 일일이 찾아 뵈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서면으로 인사드림을 너그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며,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초등학교장 최동섭)



백운교회 “어르신 효도관광”

2016년 10월11일(화)

장소:정동진일대/썬쿠르즈호텔

